

지난날을 추억하며

홍성조 (교감)



1986년 2월, 황량하기만 했던 만수 별관 한쪽을 가로질러 우뚝 선 텅 빈 교사에 신입생을 맞기 위해 사령장을 받고 처음 부임하던 날!

우린 빈 교실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난로를 설치하고 서성이면서 개교 준비 및 신입생 맞기 준비를 구상해야 했다. 임시로 난로를 피운 교실을 교무실로 정하고 우선 우리 교사들의 책상부터 들여와야 했다. 그리고 각 특별실의 각종 집기 및 필요 기자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했다. 학기 초부터 불편없이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기 위함이었다. 그러는 동안 빈 교실에 책걸상도 들어왔다. 그리고 나니 할 일이 더욱 많아졌다. 교실을 꾸며야 하고 국기도 달고 교훈도 달고 문마다 맞는 열쇠를 골라 표시도 해야 하고……. 그런 와중에도 우린 교재 준비 및 수업 준비에 소홀함이 없었다. 없는 일손인데도 문교부나 국정교과서 주식회사를 몇 차례나 왕복하며 교사용 지도 및 참고 자료 구비에 열심이었고 일부는 신입생을 위해 과제물도 준비했다.

드디어 추첨일이 왔다. 모두들 긴장했다. 주인공들인 그들이 이제 곧 밀려들어 올 것이기 때문이었다. 어떻게들 생겼을까. 예쁜 놈들일까, 개구쟁이들일까 모두들 서성이면서 아침 일손이 안 잡힌다고 초조해 하면서 잔뜩 기다림에 가슴 설렌 모습이었다.

“따르릉-따르릉-”

“예. 문일여고입니다. 아 - 22번을 타셔서 학교 앞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. 16번을 타시면 구 보르네오 자리 앞에서 내리셔서 약 5분쯤 걸으시면…….”

“네? 부평이라구요? 이 선생님 부평서 오려면 몇 번 타면 되나요?”

“아, 거 두 번 타면 될 겁니다.”

“농담할 시간 없어요.”

“따르릉-따르릉-”

“학교 위치가 어디야! “왜 그런 구석에다”-